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3. 3. 28.(화) 11:00 < 3.29.(수) 조간 > 배포 2023. 3. 28.(화)

산업단지 민간투자 활성화 논의

- 관리제도 개선과 근로자 생활편의 제고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장영진 1차관은 3월 28일(화) 반월시화산업단지에서 민간 및 금융투자자, 산단 전문가, 근로자 등이 참여한「산업단지 관리제도 혁신방안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동 간담회는 산업부가 올해 업무보고 시 제시한 “실물경제 활력 회복과 역동적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민간수요 중심의 산업단지 관리 방안에 대해 민간투자자와 기업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산업단지는 1962년 울산공업단지를 시초로 지난 60년간 우리나라의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이끌어 왔다. 작년 말 전국 산업단지는 1,274개로 12만 개 기업이 입주하여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의 62.5%, 수출의 59.6%, 고용의 48.3%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착공 후 20년이 경과한 산업단지*가 증가하면서 생산시설 노후화와 근로환경 악화, 기술과 지식이 집약된 첨단 융·복합산업으로의 업종 전환이 쉽지 않아 청년 근로자들이 일하기를 주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 노후산단수(개): ('00) 38 → ('10) 258 → ('15) 393 → ('20) 454 → ('25) 526^{예상}

참석자들은 산업단지 인프라와 정주여건 악화 등의 원인이 20년 이상 지났어도 거의 변화하지 않은 입주업종, 토지용도 등 경직된 제도 운영에 있다고 보고 이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를 위해서 새로운 산업과 창업기업이 원활히 입주할 수 있는 공간과 근로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복지, 편의시설이 산단 내에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제조업 공장 중심의 입지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노후 산단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인 발전전략을 마련하여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산단 개발을 위한 정부지원사업 전반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여 민간투자 유인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다.

한편 근로자들은 점심 식사 후 동료들과 커피 한 잔 할 장소를 찾기도 어렵고 공연, 운동 등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멀리까지 나가야만 하는 불편함이 있다며 산단 내 생활편의시설 부족을 아쉬워했다.

장영진 1차관은 산단에 “일하기 좋은 기업이 많아지고 생활하기 편리한 환경이 만들어져야 청년들은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고 기업들은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산단에 “일하기 좋은 기업이 많이 입주할 수 있도록 입지규제를 대폭 개선하고 근로자들이 원하는 복지·문화·편의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간담회 종료 직후 장영진 1차관은 반월시화국가산단 내에 첨단산업 입지 공간 제공, 근로자의 문화·편의·주거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민간투자자들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현장을 방문하여 기업편의시설, 공사현황 등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붙 임】 간담회 및 현장방문 개요

담당 부서	지역경제청책관 입지총괄과	책임자	과 장	이영호 (044-203-4430)
		담당자	사무관	신현우 (044-203-443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 **간담회 및 현장방문 개요**

□ 추진배경

○ 「**민간중심의 역동적 경제**」 구축을 목표로 **산단·공장 관련 제도**를 **기업 친화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산단 관리제도 혁신방안** 마련 중

* 산업단지 혁신 종합대책('22.11월), 산업부 업무보고('22.12월) 후속 조치

- **현장의견 수렴·보완**을 통해 **산업계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혁신방안 추진동력 및 이행력 확보**

○ 산단내 **인프라 확충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민간투자가 진행 중**인 **사업현장을 방문**하여 **공사현황 등을 점검**하고 **관계자 격려**

□ 간담회 개요

○ **일시·장소** : 3월 28일(화) 14:00~16:00, 호텔 스퀘어 안산(반월시화산업단지 내)

○ **참석자** : 산업부 1차관(주재), 기업인 등 16명, 김정환 산단공 이사장

- 입주기업 6명(대기업 2명, 중소기업 2명, 사업시행사 2명), 전문가 4명(산업硏, 국토硏, 자산운용사, 엔지니어링사), 지방정부 2명, 근로자 4명

□ 간담회 및 현장방문 세부일정

시간	내용	비고
14:00~14:05 ('5)	모두 발언	1차관
14:05~15:55 ('110)	혁신방안 토론	참석자 전원
15:55~16:00 ('5)	마무리 발언	1차관
16:00~16:10 ('10)	호텔 시설물 투어	현장방문
16:10~16:15 ('5)	이동 (호텔 → KDT융복합센터)	
16:15~16:25 ('10)	KDT융복합센터 현황 청취	
16:25~16:35 ('10)	이동 (KDT융복합센터 → 그레이박스)	
16:35~16:45 ('10)	그레이박스 현황 청취 및 투어	

〈 민간투자사업 현장방문지 현황 〉

1. 호텔스퀘어 안산

□ (개요) **산단환경개선펀드 제1호 사업**으로서 호텔 객실 203실 및 오피스텔 220실 건립 (총사업비 606억원, 사업기간 '12.3~'26.12)

* (건축개요) 호텔(부지 4,004㎡, 연면적 17,072㎡) / 오피스텔(부지 3,902㎡, 연면적 11,608㎡)

□ (지원사항) **환경개선펀드(150억원)**와 공단자금(150억원)을 시드머니로 **민간투자(306억원)를 유치** (용도변경은 해당 없음, 지원시설구역)

□ (기대효과) 입주기업의 **비즈니스 활성화** 및 각종 기업 행사 지원, 근로자를 위한 **문화·편의·주거 공간** 제공

2. 안산 KDT 지식산업센터 융복합시설

□ (개요) **지산센터(201실), 오피스텔(496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집적된 융복합시설 건립중 ('19년 펀드, 총사업비 1,360억원, '18.10~'23.12)

* (건축개요) 부지 9,985.8㎡, 연면적 69,974.44㎡(B2~14F)

□ (지원사항) **폐업상태인 보세창고 토지(산업시설구역)를 '복합구역'으로 용도변경**하고, **펀드 150억원**을 마중물로 **민간투자 1,166억원** 유치

□ (기대효과) 지산센터 건립을 통한 **신산업 및 첨단업종 입지공간 제공***, 노후산단 내 **지원 인프라 확충을 통한 근로환경 개선** 등

* 주요 입주업종 : 산업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전기자동제어반 제조업, 응용SW개발·공급업 등

3. 반월 스마트로지스퀘어 물류센터 〔그레이박스〕

□ (개요) 산단 입주기업을 위한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의 **물류센터 건립** ('19년 펀드, 총사업비 1,464억원, '20.3~'23.12)

* (건축개요) 부지 21,984㎡, 연면적 110,153㎡(B1~7F)

□ (지원사항) 기존 공장 **해외이전 용지(산업시설구역)를 '지원시설구역'으로 용도변경**하고, **펀드 300억원**을 마중물로 **민간투자 1,164억원 유치**

□ (기대효과) 해당산단에서 생산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한샘(가구) 등이 물류센터를 사용하는 등 **기존 입주기업의 생산활동 지원**